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2021년 이래 가장 강력한 미 경제 성장, 연준에 부담 줘
- WSJ: 연준이 연방 재정적자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모기지율 8% 육박... 주택 수요 더욱 압박
- CNN Business: 빅테크의 회원으로 MS와 구글, 3분기 매출 강세
- CNN Business: 미국인 작년 신용카드 이자만 1천50억불

[주택]

- Reuters: 9월 미 신규 주택 판매건 가속화
- CNBC: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방법 쉽지 않다

[에너지]

- WSJ: 엑손 그리고 쉘브론, 서부와 남미에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 탓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H1-B비자, 추첨 제도의 문제점 시정 된다
- WSJ: 마이크로소프트, AI 경쟁에서 구글보다 앞서다
- Bloomberg: 애플, TV 애플리케이션 손본다... 비디오 서비스 개선 위해
- WSJ: GM, 정체기에 놓여 있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Strongest US Economic Growth Since 2021 Puts Fed in Tough Spot

2021년 이래 가장 강력한 미 경제 성장, 연준에 부담 줘

- 요지: 미 소비 지출 급등으로 3분기 경제 성장한 상황에서 연준 의장은 빠른 성장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일자리 성장, 부의 증가, 인플레이션 완화 등 혜택을 누리고 있어 경제 성장이 지난 2년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블룸버그 설문 결과 3분기 연 성장률이 4.5%로 2분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연준의 완화 예상과는 달리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 연준은 다음주 회의를 개최하는데, 당초처럼 동결 가능성이 있으나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 JP모건측은 “성장률이 빨리 식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의 인내심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What Can the Fed Do About the Deficit? Nothing 연준이 연방 재정적자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 연준 관리들에 따르면 장기적인 채권 수익률이 경제 전망과 연준 금리 결정에 핵심 요인이다. 또한 연준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이 채권 수익률 상승의 한가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그렇지만 연준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채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며 “그런데 재정 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Mortgage Rate Nears 8%, Further Suppressing Housing Demand

미 모기지율 8% 육박... 주택 수요 더욱 압박

- 모기지율이 8%로 가까와지자 주택 구입 용자 신청이 지난 199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매 여력이 줄어들어 수요를 줄이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의 10월 20일 끝난 주의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2.2% 줄어든 127로 나타났다.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 30년 주택 모기지율은 7주 계속 증가해 오늘 수요일 현재 7.9%로 나타났다.

WSJ 기사

CNN Business: Microsoft, Google post strong quarterly sales growth as Big Tech continues its comeback

빅테크의 회원으로 MS와 구글, 3분기 매출 강세

-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이 3분기 강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부터 호전되고 있다.
- 구글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7백66억9천만달러로 수익은 1백96억9천만불.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같은 기간 13% 매출이 성장해 5백65억달러, 수익은 27% 증가한 2백23억달러를 기록했다.
- 스냅은 매출이 5% 성장한 12억달러였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ran up \$105 billion in credit card interest last year alone**미국인 작년 신용카드 이자만 1천50억불**

- 작년에 미국 신용 카드 계정 10개중에 한개(9.9%)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 보다는 이자와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지속적인 부채' 상황에 처해 있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보고서가 이같이 밝혔다.
- 이같은 변화 원인으로 인플레이 조정후에 급여 감소와 차입 비용 증가를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꼽았다.

CNN Business 기사

[주택]**Reuters: US new home sales accelerate in September****9월 미 신규 주택 판매건 가속화**

- 9월에 미 새 단독주택 판매 건수가 증가했다. 기존 주택의 만성적인 부족 때문이었지만 8%를 육박하는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신규 주택 판매건수가 계절 조종치로 연간 75만9천채으로 12% 상승했다. 8월은 67만6천채로 상향 조정됐다.
- 신규 주택 판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집계되므로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가 된다. 그러나 월별 비교는 변동성이 있는데 9월 판매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33.9% 증가했다.

Reuters 기사

CNBC: What it will take to make homes affordable again for millions of Americans**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방법 쉽지 않다**

-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약 8%에 달하면 1989년 이래로 주택 구매 여력이 최악의 수준이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2000년 이래로 가장 높다.
- 전국부동산협회(NAR)의 주택 경제성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가 2000년 이래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향상되기 위해선 낮은 금리, 가정 수입의 증가 그리고 안정적이고도 낮은 주택가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더 많은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CNBC 기사

[에너지]

WSJ: Exxon, Chevron Invest in the West as Global Conflicts Increase **엑손 그리고 쉘브론, 서부와 남미에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 탓**

- 지난 월요일 쉘브론은 남미 가이아나에서 이번 세기에 발견된 가장 큰 석유 매장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북 다코타(North Dakota)로 입지를 확장해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고자 헤스(Hess)를 인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의 두 지역은 지정학적 위험이 적은 석유 생산지로서, 쉘브론이 안정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쉘브론의 인수 소식은 미국의 셰일 기업인 엑손 모빌이 이번 달 서부 텍사스와 뉴멕시코의 Permian 분지를 확보하기 위해 600억 달러 규모로 Pioneer Natural Resources를 인수한 후에 나왔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How H-1B Visas Work and Why They're Back in Headlines **H1-B비자, 추첨 제도의 문제점 시정 된다**

- 미국 내 많은 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H1-B비자를 통해 인력 보충을 원하고 있지만, H1-B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H1-B비자 프로그램의 추첨 제도 수정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하려고 한다.
- 미 국토안보부는 비자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비자 응모에 참여한 것이 2020년 이래로 비자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위적으로 동일 인물을 중복신청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 노동부는 이 비자 추첨제도 변경을 통해 복수 지원의 가능성을 없애고, 개인에게 동일한 선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대학들이 충분한 STEM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으며, H1-B비자를 통해 입사한 인재들이 특허 건수, 기업 성장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와 관련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WSJ: Microsoft Gets Another Leg Up on Google in AI Race **마이크로소프트, AI 경쟁에서 구글보다 앞서다**

-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전년 동기대비 구글의 수입이 22% 성장해 8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월가의 전망보다 3% 감소한 것이며, 같은 분기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중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의 매출이 29% 증가해 167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대조된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Chat GP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올해 상반기에 알파벳의 주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구글은 인터넷 검색 사업을 위해 오랫동안 AI를 사용해 왔지만,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해 보인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사업이 스프레드시트 분석을 코딩하는 것에서부터 PPT를 만들어 내는 등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AI 분야에서 구글보다 더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Apple to Revamp TV App in Step Toward Simplifying Video Services 애플, TV 애플리케이션 손본다... 비디오 서비스 개선 위해

-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이 스트리밍 사업 분야에서 입지를 확장하고자 자사의 TV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애플이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6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이 앱은 iTunes, the Apple TV+ 구독 서비스, 라이브 스포츠 방송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동영상까지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애플은 사용자가 영화를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 Apple TV 셋톱박스 전용 앱을 중단할 예정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iTunes Store 앱에서 영화와 TV 섹션을 제거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WSJ: General Motors Finds Itself in a Jam GM, 정체기에 놓여 있어

-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3분기 순이익은 31억달러로 실적이 좋았던 지난해 동기에 비해 7% 줄었지만, 전문가들 예상치 25억달러로 보다는 높았다. 이는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영업 마진이 약 2억달러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인 실적이다.
- 그러나 실적 감소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 비용 상승 때문이었다.
- 디트로이트 최대업체인 GM은 현재 수익 감소와 전기/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JP모건 회장, 연준 작심비판..."경제전망 100% 틀려"****"美 당국, 인플레이·경기둔화 부정 여파 잘 헤쳐갈지 의문"**

미국 최대 금융회사의 수장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예측 및 정책 대응 능력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서밋' 행사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연준이 1년 6개월 전 내놓은 경제 전망에 대해 "100% 틀렸다"라고 지적하며 연준이 내년도 경제전망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